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모든 속박에서 해방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갈5:1

올해 8월 15일은 광복절 78주년, 건국절 75주년, 매우 뜻깊은 날이다.

오늘 < >,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우리의 과거와 미래 등을 이야기하려 한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공기, 물, 음식 등, 그런데 짐승도 노예도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러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 지위, 명예, 집, 자동차, 학식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매사에 절대적인 통제를  
받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친다.

그러나 평등도 자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간이 통제를 통해 이룬 평등은 항상 하향평준화의  
평등이다. 그래서 북한, 중공, 베네수엘라 등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 백성들은 모두가 최하위질의  
평등을 누리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므로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1959년생, 625 사변 같은 전쟁을 겪지 않았다. 자유의 의미를 모름

지금부터 약 6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내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유는 그냥 어디선가 거저 주어진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특별히 지난 3년 동안 우한 코로나  
역병 사태를 통해 전체주의 통제 사회를 경험하면서 자유를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내 아버지는 북한 황해도 안악 사람, 1930년생, 1950년 6.25사변 발발, 20살의 나이에 강제로 공산군에  
의해 차출되어 전쟁터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UN군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포로 석방이 있기 전. 많은 고민

어머니와 동생들, 논과 밭, 산, 일가친척이 모두 이북에 있다. 돌아가야 하나, 혈혈단신으로 남한 땅에  
남아야 하나? 당시 나이가 22살, 그 나이에 무슨 인생의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로 1950년 6월 25일까지 거의 만 오년을 김일성 공산주의 체제를  
경험함,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체험함. 인간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 논과 밭, 산, 일가친척 모두 포기하고 혈혈단신으로, 무일푼으로 남한 땅에  
남기로 하고 반공 포로가 되어 해방의 자유를 맞았다.

요즘 어떤 때는 당시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또 그 가난 속에서 역시 무일푼의 어머니와 함께 세 아들을  
키우는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곤 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부모자식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이다.

즉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이다.

### 창세기

성경전서는 창조자 하나님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의 기원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성경 말씀, 시14:1,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는 공과대학 교수, 18살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설계하는 일만 45년 이상 하고 있다.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 설계를 해야 한다. 그냥 생기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냥 생길 수 없다, 어떻게 그냥 생기는가? 생각해 보라.

그냥 생겼다고 믿는 것이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냥 생길 수 없음을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성경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한다(창  
1:1). 이렇게 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생성된 이후에 이것들은 보존되며(1법칙) 계속해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2법칙).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 주시기 위해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벤허1:3-4, 상상할 수 없는 일, divine nature에 참여한다.

여기서 형상은 image 즉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이미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말한다. 영원, 사랑, 공의, 질서, 아름다움 등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는 자유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디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 딱 하나: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너를 위해 세워 놓은 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지금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한다. 마찬가지로 즉 제한이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려면 법이 있어야 한다.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원리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신들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저주와 속박의 멍에가 그에게 씌워졌다(창3:17-19).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여자의 씨 메시아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창3:15).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하시는 것:

죄의 노예로 죄 시장에 팔려나간 사람들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는 것

구약 성경은 4,000년 역사를 기록함, 핵심: 인류에게 해방의 자유를 가져다줄 메시아를 내기 위한 민족의 선택(유대인),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보존하게 하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그의 열두 아들,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400년 간 종살이, 그 동안에 200-3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 나라를 형성할 수 있게 됨

때가 되어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 이집트 탈출(Exodus)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담아서 주심

여기에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속성이 정확히 나와 있다(출20:1-2).

하나님은 사람을 속박의 멍에에서 해방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며

하나님은 10개의 명령을 주신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당시 세상, 이집트, 바빌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중국, 인도 등 모든 나라

질서를 위해 왕과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들이 철권 독재 정치

대다수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 생활

하나님은 자신의 선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심, 제비를 뽑게 함

사람이 가난해지면 자기 땅을 팔거나 자식들이나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수 있음, 그러나 50년 주기로

희년이 선포되어 노예들과 팔린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 신정정치이기에 가능함

이 정도로 하나님은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메시아를 낼 백성으로서 다른 나라들에게 빛을 비추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변의 이교도 국가들과 동일하게

우상숭배하고 타락함

드디어 때가 되어 약 2,000년 전에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지만(갈4:4)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거부함,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는 신약 시대 교회를 만드심, 마16:18

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하신 위대한 선언, 마22:17-21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맞느냐? 21,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즉 이제부터는 더 이상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신정 정치 안 된다.

이제 신약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린다. 국가 교회 No! 이로써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신정정치를 떠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됨, 종교의 자유(religious liberty),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즉 국가가 어떤 특정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군민들에게 부과할 수 없는 시대가 들어섬

특별히 중간 매개자인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60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제사장 계급이 교회로 들어와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을 누르는 일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는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회가 국가 교회가 되는 길을 열었다.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됨,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또다시 모든 사람들을 국가 교회 안으로 밀어 넣는 악한 일 발생 여기에서 천주교라는 전체주의 국가 교회가 탄생하여 종교개혁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다스림, 천주교의 특징: 제사장과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priest는 예수님 이후에는 없어야 한다. 목사는 priest가 아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천주교 국가의 특징: 미신, 무지, 가난

중세암흑시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율 불가능, 오직 천주교만 믿어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주교 시스템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드디어 인간의 자유가 회복되기 시작함

그러나 국가 교회의 모멘텀을 일시에 멈추게 하는 일은 불가능

루터나 칼빈이나 녹스 등 종교 개혁자들도 여전히 국가 교회

독일 루터교, 영국 성공회, 스코틀랜드 장로교, 나머지 세상은 천주교

이러한 국가 교회에서는 아무도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이후로 드디어 시민들의 재산권 확대, 근대 자본주의 자유 시민 사회 형성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충분히 성취되지 않음

이러는 동안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 독립 쟁취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자유 헌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짐 미국 헌법 1787년 5월 25일에서 9월 17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를 기원으로 하여 1789년 13개 주에서 '백성'(the People)의 이름으로 비준되었다.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인간을 만든 이래로 약 5,80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명기된 헌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자유를 법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제 230년 정도 되었다.

이런 자유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다.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백성이 인간답게 사는 일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였다.

특히 조선 시대 말기에는 국민의 50% 이상이 노비였다고 하는 불행한 통계

조선 땅의 모든 것은 임금의 소유, 사유 재산, 양심의 자유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

이 속박의 땅, 미신과 무지의 땅 조선에 드디어 1885년 4월 50일 미국인 선교사들이 자유의 복음을 들고 와서 의료, 교육 선교를 시작하였다. 이게 불과 138년 전의 일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이것이 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이 138년 전의 일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쟁취하여 누릴 수 있도록 1875년에 이승만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는 조선 시대, 일제 식민 시대, 미국 근현대 시대 등 동서양의 고대, 근대 현대를 다 경험한 사람이다.

5년에 걸쳐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그는 한성감옥에 5년 7개월간 갇혀 있는 동안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영어를 배우고 신약 성경을 읽다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회심하여 그 이후로 뜨거운 복음 전도가자 되었다.

미국 선교사들과 성경을 통해서 그의 뇌리에 박힌 것: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것을 깨달은 그는 ‘눈 뜬 시간의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 바쳤다’.

어떤 나라인가?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이것을 어디에서 보았나?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의 이 자유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이승만을 사용해서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게 해 주셨다.

남녀노소 모두가 자유롭게 투표하는 일, 자유롭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따하 살 수 있는 헌법 그것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자유, 이제 75년 되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승만이 세운 이 자유로운 국가에 하나님께서는 박정희 같은 위인을 보내셔서 자유를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 모든 일은 대한민국 기독교의 발전과 부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은 기독교의 부흥 및 발전과 비례한다. 기독교 없이는 대한민국을 논할 수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역사, 미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된다.

기독교 자유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등의 자유 해양 세력과 함께할 때 대한민국은 발전한다.

공공 등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와 가까이 하면 대한민국은 속박에 갇히게 된다.

### 결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세상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매스터 플랜 1900년 이상 세상을 떠돌던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에 따라 1948년 5월에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세운 날부터 10억이 넘는 주변의 중동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핍박과 습격으로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지만 이스라엘은 건재하다. 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야 하니까?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올리브 산으로 반드시 재림하셔야 하므로 저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 땅이다.

우리는 지금 재림의 때 말세의 끝에 살고 있다.

세상의 끝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7년 동안 철권통치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7년 환난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공중으로 채여 올라간다. 이렇게 휴거를 경험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살전4:16-17

나는 이제 64세, 내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말, 이승만의 마지막 유언 갈5:1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예수님을 통해 죄의 속박, 지옥의 속박,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이 인간을 얽어매는 가장 큰 속박이다.

영원토록 해방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구원받은 분

구원받은 뒤에 여전히 죄의 속박에 매여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로 인해 해방의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구원받아 휴거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리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지킬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올해 8월 15일은 광복절 78주년, 건국절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인간의 몸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을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모든 성도들이 되자.

요3:16